

# 경제민주화 바람에 불똥 튕까...

## 갑을관계 윤리규범 강화교육 줄이어 ... 내부단속·자체감시 강화

대기업들이 <갑의 횡포>와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 힘쓰고 있다.

LG 계열사는 2013년 초 업무 관련자로부터 경조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윤리규범을 변경해 5만원 이하라도 금품 수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5월6일 파주공장에서 협력기업과의 상생·소통 등을 주제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5월22일 인천 송도에 있는 그룹연수원에서 정준양 회장이 주재하는 전체 임원 워크숍에서 반성의 뜻을 담아 윤리실천 다짐대회를 열 예정이다.

삼성 계열사는 2011년 4월 <준법 경영>을 선언하고 금품수수 금지, 공정경쟁, 법규 준수를 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임직원에게 준법교육을 하고 자체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또 불법·부정행위, 법규 위반사항 등을 반영해 지수를 산정하고 임원평가 때 활용할 방침이다.

대기업 임원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입법과 갑을관계가 단연 화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 민주화> 입법으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와 여러모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7>